

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α_1 -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형(α_1A) 차단제 Tamsulosin의 효과

이은식 · 이종욱

서울의대 비뇨기과학 교실

최근 개발된 선택적 α_1 -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형(α_1A) 차단제 tamsulosin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에 대한 효과와 약물의 안전성을 비선택적 α_1 -수용체 차단제인 terazosin과 비교 검토하였다.

1995년 10월부터 6개월간 전립선 비대증으로 확진된 환자(50-80세,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: IPSS > 8, 최대요속 : 5-15ml/sec, 잔뇨 < 150ml) 98례에 대하여 tamsulosin(0.2mg/일, Ta군 : n=49)과 terazosin(5mg/일, Te군 : n=49)을 무작위 선택으로 8주간 투여하고 IPSS와 최대요 속의 변화로 효과를, 혈압, 맥박, 임상병리검사 및 부작용 발현 유무로 안전성을 검토하였다. 98례 중 26례가 중도에서 제외 또는 탈락되어 72례(Ta군 : 39례, Te군 : 33례)에서 최종평가가 가능하였다. 양군간에 연령, 전립선의 크기, 기왕력, 투여전 요속 및 IPSS 등에서 유의한 차는 없었다($P > 0.05$).

IPSS는 Ta군에서는 투여전 18.3 ± 6.7 에서 투여후 11.4 ± 7.1 로, Te군에서는 투여전 21.8 ± 8.2 에서 투여후 13.4 ± 7.1 로 감소하였고, 최대요속은 Ta군에서는 투여전 9.5 ± 2.9 ml/sec에서 투여후 11.6 ± 3.6 으로, Te군에서는 투여전 9.3 ± 2.6 ml/sec에서 투여후 11.0 ± 3.7 로 증가하여 양군 모두 투여전에 비해 IPSS와 최대요속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나($P < 0.05$), 맥박수는 양 군에서 변화가 없었다. 일반혈액, 신 및 간기능, 요검사 등의 임상병리검사치는 양군에서 투여 전, 후에 변화가 없었다. 부작용 발현은 Ta군에서는 1례(2%)에서만 두통이 발생한 데 비해 Te군에서는 18례(37%)에서 소화불량, 두통, 어지럼증, 구갈, 변비, 피부발적 등이 나타났다.

이상에서 tamsulosin은 다른 α_1 -수용체 차단제와 비교하여 효과는 같으나 부작용이 적어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판단된다.